

취득세 원상복귀... 부동산 시장 흑한 오나

2억5천만원 아파트 250만원→500만원

광주·전남 입주예정 1만3723가구 '부담'

지난해 말 주택 취득세 50% 감면 혜택이 종료되면서 주택 취득세율은 종전 1~3%에서 2~4%로 최대 2배 오른다.

지역 부동산업계는 취득세 감면 혜택이 종료됨에 따라 부동산 경기침체가 더욱 깊어지면서 올 1분기까지는 극심한 거래 위축 현상을 겪게될 것으로 내다봤다.

국회는 지난 1일 본회의를 열고 9억원 이하 1주택자만 취득세율 2%를 적용하고 나머지는 4% 세율을 적용

하는 '지방세 특례제한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원래 취득세율은 주택 가격에 상관없이 4%였지만 부동산 시장이 장기 침체에 빠지자 정부가 지난해 '9·10 대책'을 통해 지난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취득세를 감면했다.

예를 들어 작년말에는 시세 5억원 짜리 아파트를 살 때 취득세로 500만원만 냈지만 이제는 1000만원을 납부해야 한다. 시세 12억원 아파트의 경우에도 취득세율이 2400만원에서

4800만원으로 배로 오른다.

취득세 감면 혜택이 사라지면서 광주·전남지역도 올해 총 1만3723가구가 적게는 몇 백만원에서 많게는 수천만원을 더 내야 한다.

지난해 말 닥터아파트가 집계한 2013년 광주·전남지역에서만 입주 예정된 주택(아파트·주상복합·도시형 생활주택)은 광주가 5855가구, 전남이 7868가구다. 특히 전남의 경우 서울(1만9186가구), 경기도(5만2787가구), 부산(1만7626가구), 경남(1만7716가구)에 이어 전국에서 5번째로 입주물량이 많다.

실제 지난해 12월까지 취득세 감면 기간 동안 광주·전남지역에서는 주택거래량이 크게 늘었다.

2일 온나라 부동산정보 부동산 통계를 살펴본 결과 '9·10 대책' 발표 직

후 인 지난해 10월 광주지역 아파트 매매 거래량은 2133건으로 전월보다 80%(949건)나 늘었으며 전월보다 1514건으로 같은 기간 46%(478건)나 증가했다.

하지만 이달부터 취득세 감면 혜택이 사라지면서 거래량이 급감할 것이라는 게 지역 부동산 전문가들의 예상이다.

광주스마트공인중개사사무소 김형진 대표는 "광주지역의 경우 취득세 감면 효과로 지난해 11~12월까지 주택 거래량이 전반적으로 늘면서 부동산 경기 침체 속에서도 비교적 분위기가 괜찮았다"며 "지역의 경우 주택시장 한파가 더 극심해 겨울 방학 이사 수요가 있는 2월 이시절 성수기는 물론 올 상반기까지는 거래가 안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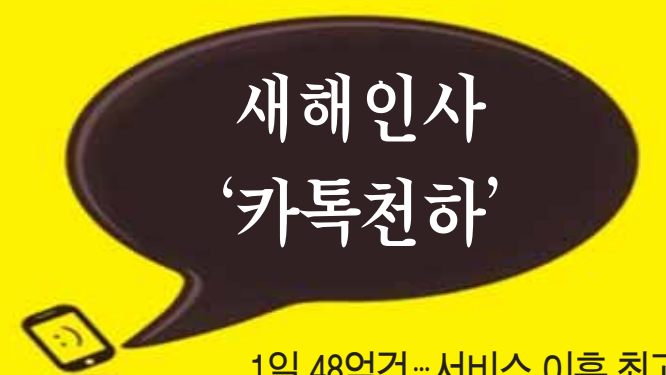
각 지자체들도 지방세수 가운데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취득세에 관해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전남도는 지난해 취득세 감면 조치가 100억~120억원 가량의 취득세가 덜 걷힌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계산상으로 취득세 감면 혜택이 사라진다면 지자체의 세수가 늘어난다는 것이다.

하지만 취득세 감면 혜택이 줄어들어 부동산 경기가 전반적으로 얼어붙을 수도 있기 때문에 무턱대고 반길 수도 없는 노릇이다.

전남도 관계자는 "여수 등지에서 2~4월 신규 아파트 분양이 몰려있어 취득세 감면 중단에 따른 거래량 감소는 없을 것으로 보이며, 단기적으로 세수 증가 효과는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정욱·오광록 기자 jwpark@



1일 48억건... 서비스 이후 최고

연하장 대신 문자메시지로 신년 인사를 전하는 사람이 늘어나면서 새해 첫날 카카오톡의 메시지 전송건수가 서비스 개시 이래 최대치를 기록했다.

2일 모바일 메신저 카카오톡을 운영하는 카카오에 따르면 새해 첫날인 1일 하루동안 전송된 메시지 건수는 48억건을 기록했다. 이는 카카오톡 서비스가 시작한 2010년 3월 이후 최대치다.

새해 첫날인 지난해 12월 31일 메시지 전송건수는 46억건을 돌파하며 일일 기준 최대 전송건수 기록을 세웠으나 다음날 2억건이 더 늘어나며 하루만에 이 기록을 경신했다.

기존의 일일 최대 메시지 전송 건수는 지난 8월 태풍 블라벤이 상륙했을 당시 기록한 42억건이다. 카카오톡의 하루 평균 메시지 건수는 지난 3월 26억건을 돌파

한 이후 계속 늘어나는 추세다. 새해 첫날 카카오톡 이용자 수도 평소보다 200만~300만명 많은 3000만명으로 집계됐다. 단 순히 계산하면 전 국민의 3%가량이 카카오톡에 접속, 한명당 153건의 메시지를 보낸 셈이다. 이처럼 신년 인사를 하려는 이용자가 몰리면서 새해로 넘어가는 자정 전후 메시지 트래픽이 평일 대비 150% 늘어났다.

카드에 메시지를 작성해 카카오톡으로 보낼 수 있는 카카오톡 전송건수도 평일보다 17배가량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회사측은 메시지 트래픽 급증에 대비해 비상 대기반을 운영했다. 앞서 추석 연휴인 지난 9월 말 카카오톡에 서비스 장애가 발생해 메시지가 전송되지 않는 현상이 빚어졌다.

【연합뉴스

자동차 보험료 인상 압박

폭설·한파 사고 급증... 손해율 100% 육박

각종 할인 정책에도 흑한기 피해가 겹치면서 손해보험사의 자동차보험료 적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 새해 보험료 인상 압박이 커지고 있다.

다급해진 손해보험사들이 1월부터 자동차보험 경영개선 특별대책반 운영에 들어갔으나 역부족이라는 우려가 크다.

2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삼성화재, 현대해상, 동부화재, LIG손해보험 등 대형 손해보험사의 2012년 12월 자동차보험 손해율은 90%를 넘어선 것으로 추정됐다.

그린손해보험과 에르코다음다이렉트 등 일부 중소형사의 자동차 보험 손해율은 120%를 넘어서 손보사 전체 평균으로도 손해율이 100%에

육박한 것으로 추산됐다.

이처럼 높은 손해율은 대규모 적자로 자동차보험료 인상 등 '자동차보험 대란'이 일어났던 2010년 이후 2년 만이다. 당시 손보사들은 자동차보험료를 평균 3% 올렸고 다이렉트(온라인) 손보사들은 추가로 1~2% 더 올려 손실을 보전했다.

업계 평균으로는 손해율이 77% 가량 돼야 겨우 적자를 면한다. 2012회계연도에는 11월 손해율이 89.0%까지 치솟아 4~11월 누적손해율 81.9%로 1천453억원의 영업적자가 발생했다. 12월 손해율은 100%에 육박해 내년 3월 2012회계연도가 끝나면 적자 규모가 3천억원에 이를 전망이다.

【연합뉴스



광주은행 송기진 은행장이 평동공단소재 식품용 비닐포장지 전문제조기업인 ㈜대성포장산업(대표 김선광)을 방문 생산 현장을 시찰 하고 금융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있다.

광주은행, 현장속으로

새해 첫 영업 평동공단 중소기업 방문

광주은행 송기진 은행장 및 임직원 30여명은 현장중심 경영방전에 따라 지역중소기업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책의 일환으로 2013년 첫 영업일에 광주지역 대표 산업단지인 평동공단 소재 중소기업체를 현장방문했다.

송 행장은 이날 중소기업 현장방문에서 "현장 방문을 통해 중소기업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 이를 바탕으로 중소기업에 대한 적극적 지원책을 펼쳐겠다"고 밝혔다.

광주은행은 지난해 설립 이래 한해 최대 규모의 8000억원 상당의 중소기업대출을 지원했으며 설립 이래 최초로 중소기업 대출 7조원을 달성했었다.

2013년에도 광주은행은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에 나설 계획이다. 우선 경기 불황에 따른 중소기업 유동성 지원 및 영세자영업자 금융지원 강화를 위해 대출금 '민기연장 특별조치'를 1일부터 시행한다. 이번 민기연장 특별조치는 오는 6월 30일까지 만기 도래하는 원화기업일반자금대출 중 일정조건(10억원 이하 등)을 충족하는 대출금이 대상이다.

대상 대출에 대해 광주은행은 1년 이내 무담보 기한연장 또는 한도감액 없이 기한연장을 해주며 신속한 의사 결정을 위해 영업점장에게 전결권을 부여했다.

【최재호기자 lion@

3750만원 벤츠 230만원 올랐다

평균 0.9% 인상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는 1일부터 평균 0.9% 인상된 가격에 차량을 판매한다고 2일 밝혔다. 개별소비세 인하 종료, 차량 기능 업그레이드, 원자재값 상승 등을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B 200 CDI는 3750만원에서 3980

만원으로, C 200 CDI는 4780만원에서 4790만원으로, E 200은 5750만원에서 5810만원으로, S 350 블루텍은 1억2070만원에서 1억2140만원으로 각각 올랐다. 그러나 젊은 고객 확대를 위해 콤팩트 SUV인 더 뉴 제네레이션 GLK-Class는 5800만원에서 5770만원으로 내렸다.

【연합뉴스

謹賀新年

청렴한사회를 만들어 갑시다!



2009-2010 국제라이온스협회 355-B1(광주)지구 제37대 총재역임



국민권익위원회(인가)

(사)반부패국민운동 광주광역시연합

상임의장 박길무

사무실 : 광주광역시 남구 서동 236번지(2층)

부정·부패 시민신고 접수를 받습니다. ☎ 062-228-4747(대)

반부패 활동에 동참하실 분의 회원가입을 환영합니다.

